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7일(토)

장 소 정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1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성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로 했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어제 자로 면직 처리되었고 질병 치료 등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출석이 곤란하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실장님,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지요?

○행정실장 송환엽 예, 통화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답변이 뭐예요?

○행정실장 송환엽 본인이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오늘 참석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개인적인 사유로 홍장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병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이의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병기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회의 주제는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입니다. 여기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유의 국가 안전보장을 상정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데 반대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전 세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여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국민이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전 세계 시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안보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께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이성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성권 위원 야당 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 차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원칙에 충실하고 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고 더 정치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우리 정보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비공개 전환을 의결하기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국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김병기 위원 이것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권 위원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정보기관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군에 있어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첩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화하는 모든, 토론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혹은 정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게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공개로 해야 되고요.

과거에 이런 사례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같은 그런 사례만이 공개된 경우가 있었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례가 없고요.

그다음에 알권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거친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브리핑을 이때껏 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해 왔는데 이걸 다 오픈시켜 가지고 하자 하면 우리의 속내를 다, 그야말로 우리 내장을 다 꺼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위원 이 건만은 다 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권 위원 그래서 비공개로 해도 충분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

문에 저는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지원 선배님하고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

○박선원 위원 의결해, 우리는 반대할 테니까.

○박지원 위원 의결해야지.

○柳榮夏 위원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주장했듯이 관례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정보위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회의를 공개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이 끝나고 나서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 주시고 두 분 간사님께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협의가 되시면 거기에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여야로 갈라져서 입장도 다르지만 바라보는 가치는 똑같다고 봅니다. 같기 때문에 선배님 말씀이나 이성권 간사님 말씀이나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고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정말로 더 나은 방법인지는 저희가 조금 숙고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상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성범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을 다룰 경우에 우리가 비공개로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국가의 안보를 중대하게 생각하는 깊은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미친 계엄 그리고 그 미친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보다도 더 중대하게 국가의 안보를 침해한 일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기관인 국정원, 방첩사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 경찰이 안 와 있는데 이런 국가의 중요 기관들이 이번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정황, 사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중해 왔던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다루어야 할 그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오 늘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정보위를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만큼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정보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선원 위원 이성권 간사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 신성범 박선원 간사 위원.

○박선원 위원 21대 국회 후반기 끝날 즈음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는 매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로 회의를 개최해서 그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장치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대

이전에는 비공개가 소위 관례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법으로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비공개로 해 왔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먼저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다, 그러면 오늘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 대상이다.

우리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북한의 대외 태세라든지 우크라이나전이라든지 이런 것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소위 언론 마사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공개로 하고 간사 입을 통해서 재탕, 삼탕 걸러진 말이 나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한 홍장원 전 1차장이 어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질병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늘 출석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호전돼서 출석할 수 있는 그때 다시 여는 것이 맞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개가 원칙이다, 두 번째 홍장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열어야 된다, 세 번째 아까 이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첩사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선관위에 투입된 인원에 사이버사령부도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불러야 되는 것이고 국수본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현재 국수본으로부터 핸드폰을 뺏길 정도로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 방첩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요. 국회법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가 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저희가 그동안 예외적으로 비공개,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해 왔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보를 지킨다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주 피감 대상인 국정원과 방첩사령부가 안보를 깨는 일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특히 국정원의 실세라고 하는 홍장원 1차장이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원장님도 패싱당한 대통령의 직통전화를 받고 그 전화를 통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해 줄 테니 방첩사를 인적으로 물적으로 다 도와라’라고 12월 3일 날 계엄을 선언한 직후에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홍장원과 여기 있는 여인형 사령관이 직접 통화를 해서 여인형 사령관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달라. 잡아야 하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이 어제 홍장원 1차장의 진술로 다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미친놈들이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메모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들이 연대해서 관여해서 깨려고 했던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위원회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고 하면 이 회의 공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위원 공개하고 증인 선서받고 시작하시지요.

○위원장 신성범 권영세 위원님 하시고 위성락 위원님 하세요.

권영세 위원님.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정보위가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게 전환이 된 지가 제법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해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의 제기가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합의를 해서 비공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슈 자체는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가안보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두 기관, 국정원하고 방첩사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방첩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서 어느 부서가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건 다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자체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전부 국가 기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박선원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간사님께서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한 이슈 때문에 이 관행을 흔트려서 앞으로 공개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해서 가지고 당장의 필요 말고 그런 국익을 고려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범 위성락 위원님.

○위성락 위원 저는 그동안에 회의할 때 정보위가 지나치게 비공개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친 정도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비공개인데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국민들이 뭘 논의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더더욱이 오늘은 사안에 비추어 보거나 그동안에 드러난 것으로 미루어 보거나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쿠데타 기도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아주 높은 사안입니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한 오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 정보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는 끝도 없이 해 왔는데 다시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정치화된 것은 정보위가 아닙니다. 정치화된 것은 정보기관입니다. 그걸 규명하고 바로잡자는 건데 왜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비공개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공개를 해야지만 잘못된 것을 규명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이런 사례를 공개하는 사례를 늘려감으로써 정보위 운영 자체도 그동안의 파행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기 위원 저희가 정보위원회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명확 간단합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인 것이지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 침탈을 하려 했던 불법이 국가 기밀이라면, 그래서 그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공개해야 된다면 그런 위원회는 없어야지요.

저는 다른 사항은 몰라도 이번과 같은 군사반란, 군사쿠데타,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여러 용어로도 부족할 만한 이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 저 아주 짧게 말씀……

○위원장 신성범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관행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쿠데타는 하면 안 된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는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 더 큰 관행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원칙이 어디 있고!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비공개를 해야 된다,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쿠데타보다 더 국가안보를 중대한 위기에 처박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위원장 신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왜 공개하면 안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개를 통해서 낱알이 그 진상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위원회라고 그것에서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범 박지원 위원님 또……

○박지원 위원 이인영 위원의 피끓는 그 절규가 국민의 목소리고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에 바라는 내용입니다. 비공개, 국가안보를 위해서 했다는데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받고 대공수사권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방첩사와 협력해서 다 잡아라,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간부로서 직속기관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용기 있는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차장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미친 놈이라고 했어요. 미친 놈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조태용 원장이 패싱되고 차장한테 대통령이 전화한 것, 방첩사령관하고 한 것 다 알려졌는데 이것을 왜 비공개해야 됩니까? 무슨 음모가 있어요? 공개합시다.

○위원장 신성범 박선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세요.

○박선원 위원 국정원에 대해서 정보위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보 출처의 보호, 우리가 이 정보를 어디서 획득했느냐 하는 정보 출처의 보호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획득했느냐, 이게 과연 휴민트냐 다른 방식이냐,

정보 획득 방식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정보의 질과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국정원이 현재 어디,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정보위를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홍장원 차장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조실장이 자기에게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고 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11시 30분에 열린 정무직 회의에서 원장은 본인이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폐하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은 그런 상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 전화 받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를 하는데도 원장은 홍장원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합시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유일한 지침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가 죽든 말든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미 언론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 다 끝내 놓고 와 가지고 비공개로 하고 다시 그것을 한번 더 걸러서 간사 입으로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내란을, 내란 가담을 비호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5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무슨 관례를 운운하십니까? 쿠데타가 관례입니까!

위원장, 의결하세요! 반대입니다, 이것은.

○박지원 위원 원장이 비겁해요, 비겁해. 국정원장이 비겁하잖아!

○박선원 위원 더 이야기할까요?

○위원장 신성범 이 정보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여러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22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오랜 관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립된 절차를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직무배제된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와 계시고 또 직무대리까지 와서……

○박지원 위원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 수괴예요!

○위원장 신성범 그래서 아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들끼리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 두 분이 와 있다는 사실이, 전 방첩사령관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이인영 위원 방첩사령관답지도 않잖아요!

○위원장 신성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0인)

권영세 김병기 박선원 박지원 신성범 위성락 유명하 이기현 이성권 이인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조태용

제2차장 황원진

제3차장 윤오준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사령관직무대리 이경민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2024. 11.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82)

11월 29일 회부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5.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1)

12월 6일 회부됨